요절복통 여래네 집

#33. 유년일기②
〈아빠와 삐약이편〉

여래 아빠는 시골 태생으로 집에서 10분도 채 안걸리는 곳에 바다가 있었답니다,

그레서 동네에 수영못하는 애는 하나도 없었지.
우와. 좋았겠다.
엄마는 아직도 수영못하지?
왜 가만히 있는 엄마를 끌어들이고 그러니?

하지만 마을사람 대부분의 생업은 어업이 아닌 농업이었대요,

농번기엔 집안일을 거들라고 학교도 며칠씩 쉬었어.
그것도 좋았겠다.
좋았겠다.
헉!
좋기는, 공부도 지겹지만 집안일 거드는 것도 지겹긴 매일반이었어.
에그, 어디 저게 애들 앞에서 할소리야.
헉헉헉!!

오늘은 그랬던 아빠의 국민학교(그땐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불렀대요) 때 얘기입니다,

아, 심심해.
엄마, 아빠는 일나가고 할머니는 동생 데리고 마실가시고….

숙제도 다 했고 형아들도 오려면 아직 멀었고 뭐 재미난 일 없을까?
부엌에 가서 긁어놓은 누룽지 같은 거라도 없나 찾아봐야겠다.

부엌으로 발길을 옮기려던 아빠의 눈에 마당가에서 서성이는 병아리가 한마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 웬 병아리지? 우리집엔 병아리가 없는데.
삐약 - 삐약
귀엽다. 삐약아 이리온.

아빠가 다가가자 병아리가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놀라게 하려는게 아니었는데….
삐약 삐약
후다닥
어?

울타리의 벌어진 틈으로 해서 병아리가 닭장안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아빠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거기는 사나운 수탉이 있단말야.
쏙!

아니나 다를까 사나운 수탉이 병아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어린 놈이 남의 집에 노크도 없이!
하지마, 하지마!
꼭꼭!!!
삐약 삐약

아빠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말라니까!
꼭 꼭 꼭!!!
삐약 삐약

그러다가 병아리가 안으로 통하게 뚫어놓은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쏙!
후다닥!
옳지, 이때다.

아빠는 재빨리 구멍을 막고 앉았어요,

꼬꼬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녀석도 더 이상 어떻게는 못하겠지?
옛날 시골 닭장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잠자는 곳
손톱로 모이 먹는곳
나도 몰랐네.
요즘엔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 있다보니 졸음이 쏟아지지 뭐예요,

잠들면 안되는데….
꾸벅!
꾸벅!
꿀!

저녁시간에 맞춰 돌아온 할머니께서 잠들어 있는 아빠를 발견하곤 방으로 안아서 옮겼어요,

애가 워쩌다 달구장에서 잠들었다?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네.
꼬꼬꼬~!
아이고, 왜 이렇게 가렵지?
간질간질!!

할머니가 찬물로 씻겨주며 말했어요,

닭니 옮았나보다. 닭니는 그저 찬물로 씻는게 최고여.
싹-아!
박박!
으, 춰!
할머니, 그런데 병아리는 어떻게 됐어?
병아리라니? 글쎄….

옳아. 선재가 병아리를 지켜주려다 거기서 잠들었나 보구나.
그거 아래집 동식이가 지네집 병아리라고 데려갔다.

아빠는 병아리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선재야. 선재야.
아웅, 누구야?
아, 삐약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과연 그럴까?
나야, 나 낮에 그 병아리.
하지마, 하지마….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안움직이지.
꼬꼬꼬!!!
삐약
쯧, 저녁에 윗몸일으키기를 그렇게 무리해서 기를 쓰고 하더니 악몽을 꾸나보군,
으으으~

이주일의 화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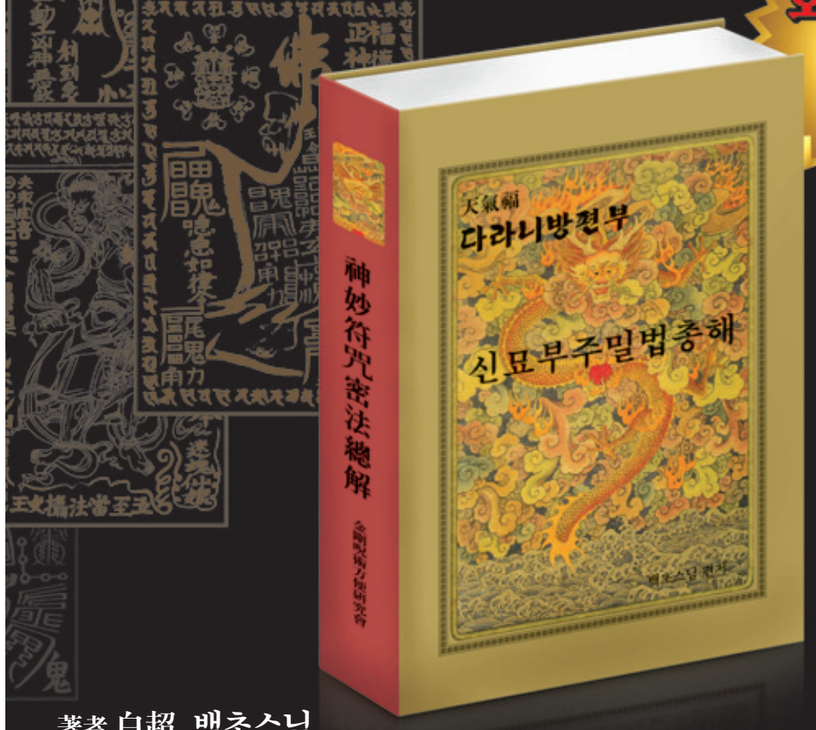
태어나서 변하고 쇠하는 것을 슬픔과 탄식이 생긴다
마침내 없어지는 것을 고뇌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
태어나서 죽기까지 온갖 고뇌가 생기고 죽음이라 한다

- 화엄경 -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3813-4443